

몰래카메라 촬영행위 근절돼야

전문가 칼럼

정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기기의 발전은 우리에게 극도로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으나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누구든지 손쉽게 동영상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영상기기의 혁명을 가져왔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몰래카메라의 범람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며,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및 그 탈의실, 공공목욕탕, 각종 화장실 등지에서 주로 행해진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에스컬레이터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만일 누군가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을 한다면 이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 초상권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하면, 촬영수단은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므로 스마트폰은 물론 초소형카메라나 일반카메라도 당사자의 허락이 없는 한 몰래카메라의 수단이 되기에 충분하다. 촬영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이므로 오로지 신체만이 해당된다. 아울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어야 하므로 허락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몰래카메라 촬영은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불법 행위이다.

(사진=셔터스톡)

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를 이처럼 강력히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몰래카메라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며, 피해자에게는 크나큰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될 수 있다.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제4항은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공공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반해서도 안 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카메라촬영행위는 표현행위의 일종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찍거나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백히 피해자의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야기하므로 헌법상 명백한 기본권 침해행위인 것이다.

몰래카메라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남성의 범죄이고 여성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통상은 여성의 신체를 남성이 촬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여성에 의한 남성의 신체 촬영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이므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촬영자 대부분이 남성이고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것은 분명하므로 인권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이런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피해자인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가해자인 남자는 이를 통해 성적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은 주어가 생략된 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규정할 뿐이다.

최근의 판례를 보면, 어떤 남성이 어두운 저녁에 어떤 여성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라타 여성을 신체로 촬영한 행위가 기소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 1심은 몰래카메라 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2심은 성립된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렇게 법원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왜일까? 대법원의 판결은 ‘일반인’의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

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가해자가 만족하면 될 일이지 왜 ‘일반인’의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결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범률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규정이 불분명하다면 해석이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옳다. 만일 사람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반드시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

몰래카메라 촬영죄는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립되지 않지만 입수한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통시키면 그 유통죄가 성립하며, 나아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유통시킨 경우에는 형벌이 가중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범죄행위로서 금지되어 있지만 범죄행위가 줄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범죄도만으로 범죄행위를 통제할 수는 없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원인은 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므로 이들의 도덕성을 강화시키는 조치만이 가장 강력한 해결방안이 아닐까 싶다. 디지털 사회에 걸맞은 보다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인터넷윤리’가 필요한 것이다.

참여마당

지한빈
<경영학 2014>



젊음의 대학에게 직관의 교육을 바란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버닝>을 두고 이를 제작한 이창동 감독은 이런 말을 했다.

“젊음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분노에 싸여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다.”

영화는 길을 찾으려 할수록 길을 잃는 젊음과 그 씬 없는 달리기 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직관이다. 재밌게도 <버닝> 극중 인물이 읽는 책으로 등장하는 알베르 카뮈의 <젊은 시절의 글>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젊은 작가 카뮈는 ‘베르그송주의’에 담긴 ‘직관’이 합리주의의 한계를 타파하고 우리를 이끌 세기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젊음은 실체와 근원을 알 수 없는 분노, 무기력함을 안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러닝머신 위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달리고 있다. 불평등의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이창동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서레마울과 파주 사이에 살고 있는” 젊음이다. 이러한 상황 하나의 인간으로 살기란 어쩌면 젊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 살기를 이룰 수 없다. 그 이외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우리학교의 교양교육은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합리주의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중핵교과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과학적 탐구의 방법 위에 정교하게 쌓아올린 방대한 텍스트와 자료들은 학생을 가르치기 좋다. 그러나 젊음이를 ‘느끼게’ 하기엔 불충분하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경희대학교는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학이다. 일찍이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문화세계의 창조’를 내건 대학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우리학교 교양체육의 현실을 보라. 체육은 체육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만 배워야 할 것이 아니다. 체육대학이 있는 국제캠퍼스에는 체육시설이 집중된 반면, 서울캠퍼스엔 골대 두 개 놓인 실외농구장과 테니스장 하나, 오래된 실내농구장과 헬스장이 전부다. 그 흔한 육상트랙 하나 없다. 해외 명문 대학들은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여건을 충실히 마련함으로써 자율적인 체육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체육을 통해 느끼고 성장한다. 직관의 교육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와 학생사회가 소통과 노력을 통해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젊음에게 예술이 필요하다.

자코메티의 조각, 스트라빈스키의 음악, 김수영의 시 같은 예술을 이성으로 이해하겠는가. 카뮈가 <젊은 시절의 글>에서 한 또 다른 말처럼, “진정한 예술은 이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때문에 직접, 함께 느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양한 작품을 보고, 듣고, 느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향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시향 단원이 강의실에서 공연을 하고, 학생들이 가까이서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이미 있다. 또한 ‘서양미술사’ 과목처럼 예술의 맥락과 배경을 소개하며 작품을 느끼게 하는 좋은 교수와 수업이 있다. 전공교육이 아니라 교양교육이다. 그러나 수많은 학생이 수강신청에 몰리는데 비해 해당 강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많은 학생들이 예술을 원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경희대학교는 응당해야한다.

오윤자의 마음코칭 - ⑥

벤치에 앉아 스트레스 통역으로 내 마음도 리셋



오윤자
<생활과학대학 학장>

“스트레스로 미칠 것 같아요. 거의 4년 내내 아르바이트에 집안일이 겹쳐서 학교를 다니는 건지 뭔지……. 밤낮이 맨날 바뀌다보니 수면도 부족하고 우울하고 배탈도 이어져요. 기말이 가까워 오니 과제도 장난이 아니네요. 갑자기 욱하고 치밀어 올라서 틱풀 동료와 심하게 다투거나 집에서 동생에게 모진 욱하고, 후회하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요즘 캠퍼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학생은 표정이 없고 더욱이 웃는 모습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혼자 있는 학생은 땅이나 먼 하늘만 응시하며 담배를 피거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두어 명 있으면 심각한 얼굴로 얘기하고, 서너 명 이상 모여야 그런 대로 단순한 웃음을 들을 수 있다.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웃는 걸 잊었거나 헛웃음으로 달래고만 있는 건 아닌지, 다가가서 묻고 싶고 웃게도 해주고 싶다.

스트레스는 어떤 요구에 대한 불편적인 신체반응이자, 삶의 전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통상 외부 자극이나 정보가 처리 능력을 넘어설 때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 측면 뿐 아니라 긍정적 가치도 가지고 있어서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강력한 추동(drive)이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 걱정 수준이면
긍정적인 효과 있어

다알(Dahl)은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반응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스트레스가 너무 적으면 무료하고 동기유발이 안되어 건강하지 못하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불편함을 느껴 역시 건강하지 못하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편안함을 느끼고,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스는 활발한 원동력이 된다. 즉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필요하다. 이는 연구다. 홈즈와 라에(Holmes & Rahe)의 스트레스 지수 연구를 살펴보면 데이트 횟수의 증감이 20점, 기말시험은 20점, 몇 교과목의 실패

는 25점, 결혼은 50점, 대학 입학과 졸업이 63점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스트레스의 최고치인 100점은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의 사망을 겪을 때라고 한다.

삶에 영향 주는 요소 맞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

확실한 건 스트레스는 삶의 한 요소로서 신체적 불편이나 심리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대처방식, 보호요인 등으로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라도 그 영향을 경감 또는 중재할 수 있다.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대학생은 주로 학업, 이성 관계를 포함한 대인 관계, 경제적 문제, 가족 관계, 사회진출 등이 스트레스 원(stressor)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완벽주의, 회피, 불안, 분노 등 감정을 억제하거나, 반대로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심각해지고 더 피로하고 우울하고 어떻게 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자. 시간이나 환경 등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됐으니 또 밤새 몸을 혹사해서 강의 듣고 팀플하고 술 먹자’를 반복하며 ‘눈앞의 뭐든 어떻게든 해내리라’는 수퍼맨·수퍼우먼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구에서 선발투수가 처음부터 강속구를 뿌리며 9회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갑자기 힘들고 일은 풀리지 않는 현실을 마주한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면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로워져

자신의 형편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해야 할 일의 목록에 따라 계획표를 작성해보자. 산적인 일을 파악하기 쉽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획과 실행여부를 비교하며 현실적인 합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심

각한 피로감, 번-아웃 증후군, 불면증, 우울증, 주의력·집중력 저하 등 심리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효과적이다.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축적된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모를 줄이고, 도움이 될 만한 개인적·사회적 지지 지원을 얻고, 자신의 요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적응해 나가면 부정적 심리 영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단계를 따라 개인 능력의 균형을 통합하고 순응성의 체계를 회복, 유지, 향상해내면 비로소 현실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기말로 가는 이맘때 즈음,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학내 곳곳 숲속 벤치에 앉아 로망의 생각하는 사람의 포즈라도 취해보자.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통역해보며 적당한 스트레스를 유지하려 해보자. 자연 속에서 인간이 진화하고 신체기관이 형성되어 왔다는 이영경의 연구를 따르자면, 5월의 초록으로 고갈된 집중력까지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